

### ▣ 박근종 칼럼 BTS 광화문 공연, K컬처 진수 보이되 완벽한 안전과 성숙한 시민의식 빛내야



성큼 다가온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보이밴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서울 광화문 공연을 눈앞에 두고 뜨거운 열정과 안전에 대한 걱

많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오는 3월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리는 BTS의 컴백 기념공연은 '2026년 최대 음악 이벤트' 중 하나로 전 세계 수많은 '아미(ARMY | 방탄소년단 팬클럽)'들이 현장을 찾고, 수억 명이 온라인으로 지켜볼 것이 분명하다. 이미 서울 시내 주요 호텔 예약은 가득 찼고, 유통업체도 다양한 이벤트로 'BTS 특수'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각 분야에서 이른 'BTS 효과'는 말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뜨겁다. 완벽한 안전 관리와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한치의 소홀함이 없는 만반의 준비를 갖춰 행사에 차질을 빚지 않길 바란다.

이번 BTS의 컴백 기념공연 광화문 행사는 3년 9개월 만의 완전체 BTS 공연으로 단순한 대중음악 행사를 넘어 전 세계적인 축제가 될 것이라 기대가 크다.

공연 티켓을 구한 관람객 2만 2000여 명을 포함해 전 세계에서 26만 명이 모이고 넷플릭스를 통해 190개국에 생중계되는 메가(Mega) 이벤트다. BTS의 영향력이나 문화강국 한국의 힘일 것이다. 그런 만큼 시민 안전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 편의 등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 정부는 행사 당일 서울 종로와 중구 일대에 다중이용 인파 재난 위기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한 상태다. 그동안 광화문 일대에는 촛불집회나 월드컵 응원전을 위해 수십만 명이 운집한 사례가 빈번했지만 별다른 사건 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다.

하지만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한창인 가운데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의 이목(耳目)이 집중된 틈을 노린 폭력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안전에 한 치 빈틈도 있어선 결단코 안 된다. 광화문광장은 개방된 야외 공간이지만 인근에 건물들이 밀집해 인파 흐름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예기치 못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경찰은 특공대 등 6500여 명과 장비 5400여 점을 공연장에 투입해 밀집도에 따라 인파를 관리한다고 한다. 테러 가능성에도 대비해 급속탐지기를 설치하고, 차량 돌진 등을 막을 철제 장애물 등도 세운다. 공연 당일 인근 빌딩 31곳의 출입도 통제된다. 공연장 우회 입장이나 옥상 관망을 하려는 인파로 인한 사고를 막으려는 것이다. 소방도 구조·구급 인력과 장비도 배치할 예정이다. 공연 시작 전부터 마무리까지 한순간도 마음을 놓아선 안 될 것이다.

당일 최대 26만 명의 불특정 다중 인파가 일시에 몰릴 것이라 예상하면서 경찰과 소방 그리고 서울시, 종로구 등은 안전 및 편의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광화문광장과 인접한 건물주들에게 출입 통제를 강력히 요청한 상태다. 티켓을 구하지 못한 팬들이 무단으로 빌딩 옥상이나 발코니에 진입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未然)에 막기 위해서다. 광화문·경복궁·시청역 무정차 통과도 예고했다. 경찰은 테러 시도 가능성 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급속탐지기 설치 등 점검검색 강화에도 나섰다.

성범죄와 절도 등 치안 대응은 필수다. 광화문과 서울시청은 물론 명동, 인사동, 홍대 인근 숙박업소까지 'BTS 특수'를 누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14일 서울 도심 한복판인 소공동 한 커피숍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관광객 3명이 중상을 입는 것을 포함해 10명이 다쳤다. 한 사람이 겨우 누울 수 있는 침대를 별집처럼 2층 구조로 이어놓은 캡슐 호텔형 게스트하우스에서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이 호텔은 명동과 가깝고 가격이 저렴해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투숙하는 곳이었다. 이들 중소 규모 숙박업소의 화재 위험을 살피고 소방·대피 시설은 적절하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메가(Mega)급 대형 공연을 앞두고 안전 관리에 이상이 없는지 관계 당국에 경종을 울리기에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는 사건으로 비정한 경각심을 갖고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만 한다. 더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은 결단코 없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최근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소와 숙박시설 등 다중 이용시설 439곳을 대상으로 미리 화재 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소화기와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비상구가 폐쇄돼 있거나 피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없는지, 화재 시 대피 요령 등 외국어 안내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사전에 제대로 점검한 것으로 시의적절(時宜適切)하게 참찰한 일이다.

무엇보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효과' 등으로 저가·개인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값싼 숙박시설도 빠르게 늘었고, 다세대주택·오피스텔·업무시설이 숙박업소로 둔갑한 사례도 적지 않다. 호텔·숙박업과 민박 사이의 제도적 공백도 있다. 이번 기회에 이러한 인프라(Infra)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됨으로써 BTS 공연 뒤에도 꾸준히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나라라는 확신을 줘야만 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 1월 20일 발표한 '2025년도 대한민국 국가 이미지'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외국인의 호감도는 전년 대비 3.3%포인트 상승한 82.3%로 조사됐다. 조사가 시작된 2018년 이래 최고치다. 지난해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역대 최대인 1,898만 명에 달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 등 문화 콘텐츠 인기에 힘입은 덕택이다. 이렇듯 약진을 거듭하면서 달아오른 K-컬처의 관심과 열정이 절정을 치닫하는 가운데 3년 9개월여 만에 펼쳐지는 BTS

## "연극부터 환경 캠페인까지"...서울시

## 171개 청소년 동아리에 125만 원씩 지원

3월 23일(월)~4월 3일(금) 접수... 5월부터 11월까지 연 10회 이상 활동 문화·예술, 과학·정보 등 9개 분야



서울시는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하고 운영하는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2026년 청소년 그룹활동 지원사업」 참여 동아리 171개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자율적이고 지속적인 활동 기반을 넓히려는 취지다. 신청하는 동아리(월)부터 4월 3일(금)까지 자치구별 거점 청소년센터에서 접수한다.

모집대상은 서울 시내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센터, 문화의집 등)에 소속된 청소년 동아리로, 그 구성원은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 10명 이상이다.

이번 사업은 기존 「서울시 청소년 동아리 활동지원 사업」을 청소년 수요에 맞게 개편한 것으로,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자원봉사, 직업·진로 등 9개 분야에서 청소년들의 자기주도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과 학교 부적응 청소년이 또래와 함께 활동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포용적 참여 환경을 조성한다. 학교 밖 청소년 또는 학교 부적응 청소년이 포함된 동아리

에는 선정심사 시 가점이 부여된다.

해당 청소년이 전체 인원의 10% 이상일 경우 최대 5점, 30% 이상일 경우 최대 10점이 추가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선정된 동아리는 5월부터 11월까지 연 10회 이상 활동하게 된다. 연극·뮤지컬, 재능기부, 탐사활동,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통 관심사를 가진 또래들과 자율적으로 활동하며 협력과 소통 역량을 키우게 된다.

서울시는 동아리별 125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할 예정이며, 서울시립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거점 청소년센터 등을 통해 멘토링과 교육, 간담회 개최, 활동 공간 제공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활동비는 1차(5월, 70%)와 2차(중간보고서 제출 후 8월, 30%)로 나누어 지급된다.

10월에는 성과공유회를 열어 우수 사례를 공유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서울시장 표창이 수여되는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동아리는 3월 23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자치구별 거점 청소년센터에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연간 활동계획(30%), 예산 집행계획(20%), 콘텐츠 참신성(15%), 지역사회 연계 활동 계획(20%), 동아리 연혁 및 활동 실적(15%) 등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한다.

신청 및 접수 방법과 심사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서울시청소년몽땅(www.youthnavi.ne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이 학교 인력의 다양한 청소년에게 열린 참여 기회가 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청소년들이 스스로 활동을 기획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진로탐색과 사회참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 "아미노믹스 현실로"...BTS 광화문 공연에 유통가 '색땀'

방탄소년단(BTS)의 컴백 공연이 단순한 문화 이벤트를 넘어 유통업계에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낳았다.

BTS의 공연이 처음으로 광화문에서 펼쳐지면서 광화문 인근 편의점부터 명동의 백화점과 면세점까지, 유통업계는 전례 없는 '특수'를 누렸다.

22일 주요 유통 기업들이 내놓은 잠정 매출 데이터는 이른바 '아미노믹스(Aminomics)'의 실체를 수치로 증명했다.

◇ '현장 보급소'가 된 편의점...생수 9.3배·앨범 214배 판매도

CU는 공연 영향권인 광화문 인근 점포 매출이 직전 주 같은 요일 대비 3.7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공연장과 가장 인접한 대로변 점포 3곳의 매출은 6.5배나 급증했다.

특히 '팬텀 소비'가 두드러졌다. 매출 순위 1위부터 4위까지 모두 'BTS 앨범'이 휩쓸며 음반 매출이 전주 대비 214.3배로 폭증했다. 응원봉용 'AAA 건전지'는 평소보다 51.7배 더 팔리며 매출 5위에 올랐다.

또 공연을 즐기기 위해 간편식 매출도 늘었다. 김밥(14.8배), 샌드위치(12.5배), 삼각김밥(9.8배) 등 식사 대응품과 생수(9.3배) 매출이 폭증했다.

GS25 역시 광화문 인근 5개 매장 매출이 전주 대비 3.3배 신장했다. 특히 멤버진(IN)이 모델인 '아이진(GIN) 하이볼' 매출은 18.4배나 늘어 팬덤 소비를 입증했다.

살얼한 날씨 탓에 핫팩 매출은 58배, 보조배터리는 21배, 건전지는 36배로 각각 증가했다.

세븐일레븐은 광화문과 명동 상권 40개 점포 매출이 전달 대비 2.2배 늘었으며, 핵심 점포는 7배까지 치솟았다.

특히 치킨과 군고구마 등 즉석식품 매출이 전주 대비 26.3배 증가했다.

편의점 간편식·응원용품 판매 급증...백화·면세점은 객단가 증가

"한류와 관광 연계해 지속 가능한 산업 효과 창출해야"

실제 모인 인파 공연 주최측 10만4천명 공무원 1만 동원



이마트24 또한 광화문 일대 점포 매출이 전주 대비 1.4배 늘었으며, 특정 점포는 4배까지 성장하며 건전지(5배)와 물티슈(3.6배) 등이 매출 상위 기록했다.

◇ 백화점·면세점 'K-특수'...전 세계 아미가 명동으로

대형 유통가도 '아미노믹스'의 수혜를 입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문이 집중되면서 K팝 굿즈와 먹거리 분야가 실적을 견인했다.

롯데백화점 본점의 매출은 공연 준비 및 당일인 20~21일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본점을 방문한 외국인 고객 매출은 전년 대비 2.4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본점 델리·베이커리 매출은 40% 이

특히 20~21일 매출은 전주 대비 1.5배 증가했으며, 국적별로는 영국인 고객이 3배, 미국인 2.7배, 인도네시아인 2.7배로 각각 늘면서 방한 관광객의 국적도 다양해졌다.

이 밖에 외국인 관광객 증가로 BTS 키링과 파우치, 칫솔 세트와 일회용 밴드 같은 실용품까지 품절됐다.

롯데면세점 명동본점은 외국인 개별 관광객(FIT)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9배 신장했다. 구매 고객 수는 약 27% 증가해 객단가가 크게 상승했다.

한류 스타 체험 공간인 '스타에비뉴' 방문객도 3월 평균 대비 16% 늘어났다.

◇ 일회성 K팝 특수로 끝나지 않으려면..."한류와 관광 연계"

BTS 공연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한류와 오프라인 유통, 그리고 관광까지 이어지는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관광객들이 공연 전후로도 흥대와 성수동, 남산 등 유명 지역을 많이 방문할 것"이라며 "공연 전후로 주요 관광지 매출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에쁜 거리를 만들거나 이번 공연 같은 행사가 빈번하게 열리면 소비자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며 "규모가 작더라도 공연이나 관련 굿즈 등이 많이 생기면 산업 효과가 생긴다"고 전망했다.

이중우 남서울대 유통마케팅학과 교수는 "BTS를 보려고 온 관광객들이 재방문하는 등 지속가능하게 유통기업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협력해야 한다"며 "뮤지비디오 장소를 투어와 연계하거나, 한 번 방문한 관광객이 동반자를 데려올 수 있도록 확대하면 효과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원 기자

## 화염사 흥매화 만개...사진 콘테스트

구례 화염사 흥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4월 5일까지 연장



화염사는 22일 제6회 구례 화염사 흥매화·들매화 사진 콘테스트 접수 기간을 오는 4월 5일까지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리산 해발 약 450m에 자리한 화염사 흥매화는 일교차와 바람·습도 때문에 경남 양산 통도사 자장매나 전남 순천 선암사 선암매보다 개화와 만개 시기가 다소 늦다.

올해 흥매화는 지난 6일 첫 꽃망울을 터뜨린 이후 약 3주 만인 이날 오전 만개해 화염사 경내를 붉은 봄빛으로 물들였다.

최근 10년간 평균 개화 시기는 3월 10일 전후, 만개 시기는 3월 하순에서 4월 초 사이로 분석됐다.

흥매화 개화 상황은 화염사 누리집 라이브캠(Live Cam)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화염사 흥보국장인 범정섭님은 "흥매화가 절정을 이루면서 앞으로 약 10일 정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많은 분이 화염사를 찾아 봄의 정취와 여유를 함께 나누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윤석 기자

	<b>www.thesegeye.com</b> 7차재판: news@thesegeye.com
	● 회장 이채봉 ● 발행인 심규영 ● 편집인 이채봉 ● 편집국장 이상성 ● 마케팅본부장 이현진 ● 인쇄인 디엠코리아(주)
● 편집국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62길 13층 (남신빌딩)	
편집국/기사제보 : 1661-8385 광고국 : 02)717-7272 FAX : 02)717-7273	등록 : 2007년 3월 22일 창간:4월23일 등록번호 : 서울 가 50106 구독료 : 한달 15,000원 한부10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